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후 1시 30분부터 선교회별 월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각급학교를 졸업하는 이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예배를 오늘 오전 11시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2월 6일(수)은 재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사순절에 드려야 할 환경 기도 제목을 나누어드립니다. 날마다 성심껏 기도하십시오.

수요일 저녁 집회는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명절을 보내십시오.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환한 미소도 선물일 수 있습니다.

<새교우 소개>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분주하게 내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세상일에 쫓겨 종작없이 흩어지곤 하던 정신을 모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상한 마음 위에 하늘의 친절한 빛을 비추시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우리 가슴에 원수가 뿌린 악의와 미움은 뽑아주시고, 주님이 본래 심어주신 온갖 덕목들이 싹을 틔우도록 이끌어주십시오.

너무나 오랫동안 배부르게 못할 것들을 구하느라 숨이 가빴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벗어나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느슨하고 무기력한 우리 영혼을 주님의 영으로 죄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이 따뜻해져 마침내 모든 것에서 주님의 현존을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방문성 박혜경 김인걸 문영혜 김중수 이순정 박규석 박경선 김희진 박홍재
 안종일 정현주 오진훈 노순옥 윤영원 이선희 문복순 최현선 강인식 김정숙
 권아주 방민 오자영 이성운 맹은선 권미숙 황지현 김일랑 이은옥 왕성환
 강순배 권미정 김극 임영 정경례

월정헌금:

권미정 서정순 유형준 김현미 이동천 장재영 김재영 윤성종 김윤정 이해동
 윤여민 임보람 박찬정 최동운 배재경 이수정 박범희 박미영

감사헌금:

김재흥 최희영 곽권희 황경순 박병구 김용진 박효선 김영학 김현주 조항범
 오현정 전세종 오광자 정현창 고재중 정은영 오송경 무명2

100주년 기념헌금 :

한상의 정영선 박병구 윤주원 최윤선 박범희 정미경
 (100주년 헌금 누계: 162,040,000원)

	장혜숙 노순옥 임정자 문영혜 안정숙 박홍재 박효선 최숙화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백혜숙 송양진 이영란 박혜경	장혜숙 정경례 임정자 박경선 박애순 곽권희 허정윤 권미정 김금순 권미숙 오현정 정옥영 유경순 박미영 최영혜	연합수회	십
--	---	---	------	---

쉽 없이 달려감

-- 헤르만 헤세

그대 두려움에 감싸여 있는 영혼이여
 그대는 늘 이렇게 묻는다
 험난한 날을 그렇게 많이 보냈건만
 평화와 휴식은 도대체 언제 오는가?

오, 나는 안다
 편안한 날을 맞이하자마자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랑스러운 나날을 고통으로 보낸다는 것을

그대는 잠시 안식을 취할 뿐
 다시 새로운 고통을 찾아 나간다
 성급하게 뜨는 셋별처럼
 우주는 조바심에 가득 차 있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아무리 바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웃들을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오르도록 마음 쓰며 사십시오.

아멘.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보듬어 안으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서 키운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인생의 온갖 아픔과 어려움조차 기꺼이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월례회	재의 수요일!
인도/회장과 인도자	가족과 함께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윤 윤 선생 구성실 장로	인도자 백혜숙 권사

2월	영접위원	한완식 이호원 김 극 박홍재 백혜숙 권미정
	헌금위원	조병무 박혜경(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이 아이에게 웃어주십시오

1.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를 지켜주시고 제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날마다 제 가슴에 기도의 제단을 쌓도록 도우셨고, 그리하여 힘든 노동 중에도 당신 안에서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안식하는 날을 맞아 제 눈길을 온전히 당신께만 모으렵니다. 오늘 이 기쁨이 낙원에서 누릴 기쁨의 전조(前兆)가 되고 오늘이 예배가 당신의 하늘 보좌 앞에서 드러질 영원한 예배의 예행연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당신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당신 사랑을 좇아 제 마음의 풀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온갖 근거 없고 악의에 찬 잡담들에게는 귀머거리가 되고, 온갖 유혹에는 맹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어 오직 당신의 진리에만 깨어 있고, 오직 당신의 은혜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영원한 안식일 날, 끝없이 이어지는 하늘 잔치에 받아들여질 때까지, 주일에 이어 주일, 안식일에 이어 안식일을 기리도록 해주십시오.

2.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그것은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고, 그나마 아는 것도 분명치 못하고 불행을 겁내고 행운을 바라는 보통 사람입니다. 당신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헛일이요, 당신이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제 손은 눈 먼 사람처럼 더듬거립니다. 당신의 성령으로 저를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시어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당신의 뜻에 따라 이루게 해주십시오. 모든 위험과 상해(傷害)에서 저를 보호해주시고, 강도들과 야만족들로부터 제 집을 지켜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몸으로도든 마음으로도든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제 가슴을 오직 당신 한 분 섬기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한 주간에든 저를 더욱 성결하게 하시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 늘어나게 하시고 기도는 더욱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드님이시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가까이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3.

하나님, 당신은 저를 이토록 큰 슬픔과 분노에 밀어 넣으시어, 제 눈을 눈물로 젖게 하시고 제 심장을 멎게 하시며 아프게 하시는군요. 저 또한 때 행복한 시절이 있지 않았던가요? 평화롭게 휴식을 즐긴 적이 있지 않았던가요? 저는 언제나 위안과 위로를 얻고자 당신을 찾았습니다. 겁이 날 때면 늘 당신 품으로 도망치곤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품소 저를 내어던지시고 저를 뿌리치십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도 당신이 저를 거절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이 저를 등지는 줄로만 알았고, 당신은 여전히 제 곁에 계신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의 거룩한 친구인 당신이 저에게 냉담하고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기도를 바치려고 해보았지만 도무지 들으시는 것 같지 않더군요.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지만 저의 울음은 텅 빈 허공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주님, 돌아와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알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견디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를 거절하시는 것이 제 믿음을 알아보려는 시험에 지나지 않고, 그 시험을 이제 곧 마치시리라는 사실을 저에게 확인시켜주십시오. 예, 제가 믿습니다. 예, 저는 이 시험을 통과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 지금 끝내주십시오. 지금 저를 일으켜주십시오.

4.

오, 주 나의 하나님, 제 아이에게 당신 사랑의 빛을 비추어 모든 질병과 상해에서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여린 영혼에 들어가시어 당신의 평화와 기쁨으로 위로해주십시오. 아직은 너무 어려서 저에게 말도 못합니다. 제 귀에는 아이의 울음이나 웅얼이가 아무 의미 없는 소리로 들릴 따름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귀에는 기도 소리도 들리겠지요. 그의 울음은 당신의 축복을 바라는 울음이요, 그의 웅얼이는 당신의 은총을 기뻐하는 웅얼이입니다. 그로 하여금 아이 때는 아이로서 당신의 계명에 따르는 길을 배우게 하시고, 어른이 되어서는 땅 위에 세워진 하늘나라를 섬기는 일로 평생을 보내게 하소서. 그리고 마침내 늙어서는 당신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인식 가운데 평안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저는 이 아이가 부유해지거나 권력을 행사하거나 유명해지기를 소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가난하고 행동에 겸손하고 예배에 경건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옵 주님, 이 아이에게 웃어주십시오.

(요한 스타르크[1680-1756]의 기도)